

# ‘무엇’ 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에도 비중 둔 비평 필요해

미성숙한 과거의 비평관행 지양해야...

어린이책 출판 전과정 아우르는 안목 필요해

김서정 | 동화작가 · 번역가

“알록달록한 어린이책 표지들은 마치 긴장한 채 미인 대회에 참가한 후보들의 굳은 미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운이 좋아 선발되면 모를까, 며칠 후면 저 위에서 내려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책들도 있겠지, 생각하면 애잔하다. 책 한권 한권의 운명을 생각하면 무엇을 쓰고 옮기고 읽고 권할까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 어린이책을 만들고 읽는 사람들 모두 자기 몫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서점의 어린이책 코너가 현란하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 책들이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다’ ‘어디어디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카피와 메달 그림 등으로 치장하고 자태를 뽐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중견, 신생 출판사들이 어린이책 시장에 뛰어들었다. 어른 독자들이 책을 외면하는 독서풍토에서 어린이책은 그나마 ‘장사가 된다’는 장밋빛 전망에 힘입어서였다. 과연 어린 독자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어린이책에 손댄 것을 땅 치고 후회하며 보파리를 찼다는 출판사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 소모적인 창작-번역물 논쟁은 지양해야

그 반대로, 한국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볼로냐 어린이도서전 이야기는 신물이 나도록 듣는다. 싸늘이도 모자라 우리 출판사들끼리 벌인 저작권 쟁탈전에 외국 출판사만 살판났다는 자조와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그런가 하면 창작물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같이 문학성이 풍부한 동화부터 《한국생활사박물관》(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이상사계절) 같은 대형기획물까지, 우리 어린이책의 위상을 높이는 작품들이 적잖게 나온다. 현재 우리 창작물들은 각종 베스트셀러 목록을 휩쓸고

있으며, 편집자들은 발빠르게 기획되는 아이টে임을 소화해줄 적절한 작가와 원고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창작과 번역으로 어린이책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힘겹게 관계를 맺어오던 나로서는 최근 몇 년 사이의 이 가파른 상승 무드가 우선 반갑다. 무관심과 지나친(그러나 그릇된) 관심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이쪽저쪽으로 등 떠밀려 기우뚱거리며 걸어오던 어린이책이 탄탄하게 균형잡고 서서 제 앞가림을 할 만큼 자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책을 쓰고 옮기는 입장, 만들고 읽고 권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 자리를 밀도있게 점검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도 새삼 깨닫는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자기를 반성하고 성장해 성숙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책을 만들고 권하는 어른들이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어린이책 출판계에서 가장 일선에 나와 있는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는 번역물과 창작물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어린이책에 관한 대답이나 논평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물의 높은 비중, 외국 베스트셀러의 무분별한 수입을 우려하면서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창작물을 펴내고 읽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와 현실을 알리는 일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를 이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번역물의 중요성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창작물인가 번역물인가가 아니라 좋은 책인가 그렇지 않은 책인가다. 어린이책에 대한 전문적 감식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에이전시나 출판사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한 베스트셀러인지, 새로운 세계관을 깨닫게 해주고 미적·언어적·과학적 감수성을 계발시켜 주는 베스트북인지를 엄격히 가려내는 일이 어린이책에 대한 논의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

## 상대방 이야기 경청하는 토론자세 갖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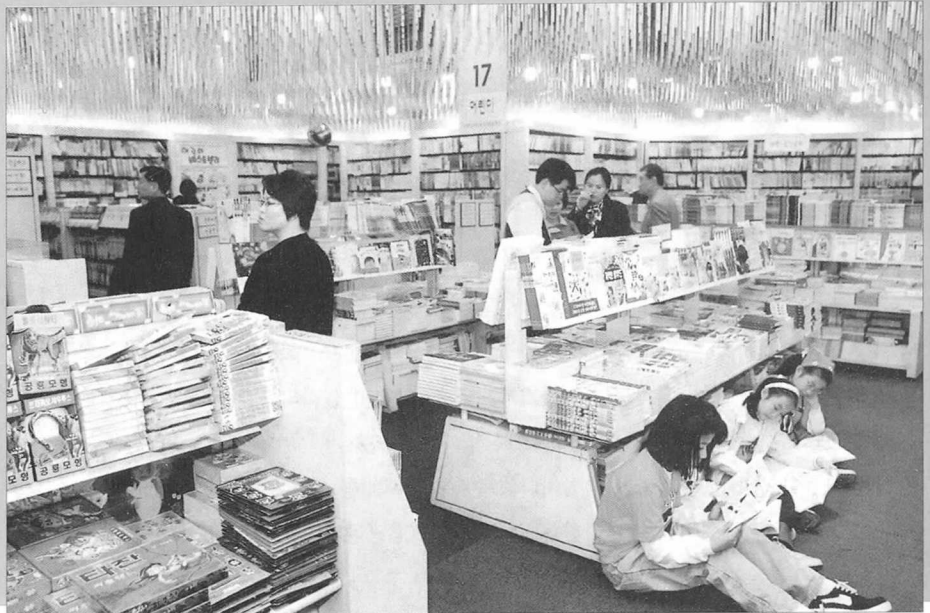
최근 나온 한 평론집에는 추석을 맞은 아이의 경험담을 보여 주는 어떤 그림책에 대해, 표정과 리듬감이 살아 있는 그림에 비해 텍스트가 추상적이고 동어반복이라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비판이 실려 있다. 그런데 그걸 본 독자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몰랐다면 더 알고 말해라, 알고 그랬다면 그 글은 잡문이다”는 요지의 반론을 올렸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끈함이 느껴지는 이런 류의 글은 올바른 비평문화를 조성하는데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식의 대응은 어린이책에 대한 대화를 성숙하고 풍요롭게 이끌어내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어떤 주제에 대한 감론을박이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은 영역에서 비평이 펼쳐져야 한다. 그 책이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를 깊이 있고 생기 있게 담아내기 위해 어떤 독특한 시도를 했는가, 그림책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글과 그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조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섬세하게 짚어내야 한다. 우리 정서라는 말이 함량미달 작품에 대한 면피용 카드로, 낯선 정서나 우리와 다른 환경을 다룬 외국책을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내는 방패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작가나 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번역물 출판과 함께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의 유통 경로와 양태다. 우리나라에는 1987년 이후, 사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은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이 유효한 상태지만, 그 약속 바깥쪽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해적판이다. 이런 해적판들은 원작의 내용을 멋대로 빼고 붙여 만신창이로 만드는 경우도 적잖다. 정식 경로를 거쳐 나온 책과 많게는 7~8종의 해적판이 동시에 유통되는 딱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해적판이 정체를 모를 해적 출판사뿐만 아니라 전통 있는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낮은 가격, 시장 선점을 무기로 한 이 해적판들은 정본을 뛰어넘는 판매고를 올린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각종 책 권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불법 도서들을 추천 목록에 올리기도 한다. 권장단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추천 도서를 내놓았는지, 책임감을 갖고 설득력 있는 투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우리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결의는 그 구호를 되풀이하는 일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도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거나 작가 혼을 난도질하고 질식시킨 상처투성이 책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올바른지 않은 방식으로 올바른 정신을 심겠다는 자세는 기만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어린이책 비평의 시대가 열렸다. 어린이책에 이론적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도 부쩍 많이 생겨났다. 현단계 어린이책 비평은 상대방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이론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어린이책 코너.

쏟아져나오는 어린이책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권하는 일에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비평의 눈길이 필요하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말하고 있는냐에도 똑같은 비중을 뒤야 한다. 목표와 결론을 향해 줄달음치는 경주보다는 그 목표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깊이와 무게, 짜임새와 절제, 그리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책을 아이들 앞에 펼쳐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근 들어 관련서 부쩍 늘어나

최근 어린이책을 여러 각도에서 짚어 보는 평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길이 그다지 험난하지만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든다. 그림책이나 판타지 같은 특정 장르의 책들을 깊이 있게 분석한 책, 우리 어린이 문학의 역사와 주요 쟁점, 작가와 작품들을 학구적으로 탐구한 책, 구전설화에 나오는 어린이 상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의 어린이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책, 어린이 독서 지도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애정 어린 따끔한 비판을 용기 있게 가하는 책, 서구 어린이 문학 이론의 현장을 보여 주는 책 등. 이런 평론서들을 길잡이 삼아 그것을 뛰어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그리고 그 논의가 우리 어린이책의 지평을

더욱 넓혀줄 때, 우리 어린이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알록달록한 어린이책 표지들은 마치 긴장한 채 미인 대회에 참가한 후보들의 굳은 미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운이 좋아 선발되면 모를까, 며칠 후면 저 위에서 내려져 책꽂이에서 등만 보이고 있거나, 어쩌면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급기야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책들도 있겠지, 생각하면 애잔하다.

책 한권 한권의 운명을 생각하면 무엇을 쓰고 읊고 읽고 권할까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예상롭지 않다. 어린이책을 만들고 읽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몫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